월요광장



심옥숙 인문지행 대표

쓸모없는 온갖 정보가 넘쳐날수록, 역설적으로 아는 것이 힘이라는 명제는 설득력을 얻는다. 왜 우리는 금 방 잊혀지고 사라질 시시한 정보 나부랭이에는 집착하 면서 정작 중요한 문제는 관심조차 없을까? 이런 일은 일상의 전지적 시점을 공유하고 싶은 욕망에서 시작된 다. 원래 전지적 시점은 문학 작품 속 모든 인물의 내면 을 관통하며 사건의 시작과 결말을 이미 아는 입장에서 서술하는 방식이다. 일상에서 겪는 전지적 시점은 주 변의 모든 일을 미리 다 알아서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어떤 결과가 될 것인지를 아는 것처럼 확신하는 것이다. 그래서 소소한 정보의 공유를 통해 서 전지적인 '우리'의 집단을, 즉 주류를 형성한다. 이 런 구조를 통해서 개인들의 어리석음과는 별개로 집단 의 목소리는 언제나 크다. 마치 전지적 신처럼 모든 것 을 미리 다 아는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군림하고자 하는 '우리'가 되기 때문이다. 사실 '전지적 시점'이라 는 표현은 사람에게는 쓸 수가 없다. 무제한적이고 전 권적인 능력을 내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신과 같은

전지적 시점을 향한 욕망에 대하여

존재의 능력자라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전지적 능력에 대한 욕망에 우리는 쉽게 지배되면서, 열심히 전지적 시점의 주류 언어를 사용한다.

신화의 제우스 신 정도라면 전지적 시점으로 세상을 볼 수 있다. 제우스는 아버지로부터 빼앗은 권력으로 올림포스 12신의 왕 노릇을 하는 위치에 올랐다. 번개 를 무기로 사용하며 아무 때나 원하는 모습으로 변신하 는 신이다. 하지만 제우스는 알려진 것과는 달리 현명 하고 공명정대하게 행동하려고 애쓰며 늘 세상 돌아가 는일을 세심하게 살폈다. 고전 '일리아스'에 나오는 이 야기다. 제우스는 늘 눈과 귀를 열어두고 있어서 세상 일을 먼저 알았다. 어느 날 제우스는 트로이 전쟁에 나 간 자신의 아들이 곧 죽음을 맞게 될 것을 알게 된다. 자식의 죽음은 사람에게만 고통이 아니고 신에게도 역 시 마찬가지이다. 괴로워하던 제우스는 결국 헤라에게 고통을 털어놓는다. 사실 제우스는 조용히 아들을 얼 마든지 살릴 능력이 있고, 또 그렇게 한들 감히 누가 비 난하기도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제우스는 헤라에게 물었고 헤라는 최고의 신이면 지켜야 할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정하게 행동하라고 냉정하게 조언한다. 그리 고 헤라는 아무리 제우스 아들이지만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죽음을 피할 수 없다고 말한다.

제우스는 왜 굳이 헤라에게 물었을까? 죽음을 앞에 둔 아들은 헤라와의 사이에 태어난 것도 아니다. 제우 스는 정말 혼자서 판단을 내릴 수 없었을까? 아니면 사 실은 자신의 절대권력으로 아들을 살려내서는 안 된다

는 판단을 내린 후에 헤라에게 물은 것일까? 헤라에게 직접 자신의 막강한 힘이 사사롭게 쓰여서는 안 되는 것을 다짐받고 싶은 것이었을까? 결국 제우스는 늘 사 이가 좋기만 한 것도 아닌 헤라의 말을 수용하고, 아들 은 죽는다. 적어도 이 대목에서 제우스는 전지적 시점 과 능력을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함부로 휘두르지 않

사실 엄밀하게 보면 전지적 시점은 절대적 힘을 가진 우월적 위치에서 다른 사람을 대하는 시선이자 태도 다. 다시 말하면 옳고 그름을 좌우하는 결정권을 행사 하는 힘이다. 예를 들면 중요한 것을 판단하는 권력자 와 권위자의 시선, 전문가의 시선, 강자의 시선 등이 현 실적 일상에서 전지적 시점으로 행세한다. 하지만 전 지적이라고 해서 전능한 것이 아니고, 전지와 전능은 서로를 보완해야 한다. "그렇게 될 줄 이미 알고 있었 다", "아직도 그것을 몰랐다니, 바보군" 등의 전지적 시 선만으로는 변화하는 것은 없다.

최근 한 외국 작가가 한국에서 한 경험을 담은 영상 에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를 여행했다"라는 제목 을 달았다. 온갖 다양한 화려함과 최신의 기술문명, 세 계가 주목한다는 고급의 소비시장 등. 이 모든 정보가 넘쳐도 여전히 '주류'에 속하지 못하거나, 억압과 수치 를 당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원인으로 봤다. 제우 스는 아들을 살릴 수 있는 전지적, 전능의 힘을 가졌지 만 쓰지 않았다. 타의에 의해서 강제된 비주류의 삶에 대한 제우스적 고민과 결단이 절실하지 않은가?

수필의 향기



박용수

눈 속 매화가 곱다. 봄의 화신 매화는 매운바람을 견 디고 있다.

서두르다 보면 패착을 둔다. 바둑은 지긋해야 한다. '아생연후살타(我生然後殺他)', 견디라는 말이다. 잘 견뎌 내야 한다. 상처도 오랜 시간 견뎌내야 낫고, 실상 사랑도 잘 견뎌낸 이가 성취한다.

무등산 하산 도중에 미끄러졌다. 통증을 견디며 절 뚝절뚝 내려왔다. 봉황대에 기대어 쉬면서, '아버지의 해방일지'를 생각했다. 빨치산들의 혹한, 추위와 곡기 를 견뎌내는 일 또한 이념과 무관하게 한 인간으로서 결코 가볍게 여겨지지 않았다.

널리 알려진 '죽음의 수용소'에서 저자 빅터 프랭클 은 의미 없이 번호로만 취급받는 가혹한 기아와 노동은 물론 배변을 나누는 끔찍한 상황을 견디며 비좁은 수용 소에서 대작을 썼다. 신영복 교수 역시, 통혁당 사건으 로 20년간 징역을 살았다. 당시 동료의 체온이 있어서 추운 겨울, 수감 생활이 견딜 만했단다. 그러나 여름에 는 그 체온이 오히려 찜통이 되어 동료들에게 적대감을 느꼈다고 회고했다. 견디기 힘들었을 것이다.

견디는 일이 꼭 위대한 신념이나 철학만 필요한 게

견딤과 인생

아니다. 아주 작은 생리적인 것들도 견뎌야 하는 경우 가 적지 않다. 다급하게 화장실에 갔는데 칸칸이 사람 이 들어있을 때, 견딤은 견딤조차 순전히 고통이고 괴 로움이 된다.

"삶은 그렇게 그냥 견디는 것이다."

다소 식상한 말처럼 들린다. 그러나 여러 번 곱씹어 본다. 지극히도 평범한 성찰 같지만 씹을수록 맛깔난 통찰이다. 주변을 돌아보면 잘 사는 사람들 대부분은 잘 견딘 사람들이다. 아니 잘 견딘 사람이 잘 사는 사람 들이다.

내 앞에 놓인 책 한 권, 삶은 그냥 견디는 것이다. 제 목만 보고 책 한 권을 읽은 느낌이었다. 50대 후반의 박 사 학위를 받은 작가가 내린 결론 '견딤' 그도 생이 온 통 견딤이었던 모양이다.

지금까지 내 삶도 우리 역사도 온통 견딤 아니었을 까. 진학하기 위해 견뎠고, 야간 학습, 대학입시, 취업, 전역, 퇴직까지 어느 한순간도 견디지 않았던 때가 없 었던 것 같다. 수많은 외침도 견뎠고, 흉년과 역병도 견

주사약이 들어갈 때 통증을 견디고, 퇴원할 때까지 고충도 견딘다. 싹이 날 때까지 기다리고, 꽃 필 때까지 지켜보며, 익을 때까지 버틴다. 비와 벼락을 맞고, 햇 살과 가뭄을 이겨내야만 열매를 맺는다.

식욕도 견디고, 그리움도 누르며, 하고 싶은 말도 참 고 산다. 자기 뜻을 관철하기 위한 단식, 곧 목숨을 걸 고 굶주리는데, 그마저도 조롱당할 때, 그조차 우린 견 디고 또 견딘다.

즐거울 때는 순간, 우리 몸 대부분이 수분이듯 우리

삶 대부분은 고통이나 슬픔이다. 그러니 삶은 견뎌내 는 일이다. 좋아하는 고기도 낚는 즐거움보다 기다리 는 견딤의 시간이 백배 천배 더 많고, 내가 지지하는 팀 이나 정당이 지는 경우가 많아서 승리까지 오래도록 견 뎌야 하는 시간이 부지기수다. 화무십일홍이요 권불십 년, 인생은 원래 견딤이라는 인생 팔고(八苦)가 무겁 고 또 무겁다.

반면 고통을 꼭 나쁘지 않다고 평가한 이도 있다. 17 세기 의사 토마스 시든햄(Thomas sydenham)은 극 한 상황에서 자연이 사용하는 현명한 도구가 어느 정도 염증과 고통이라며 어느 정도 고통이 우리 건강에 유익 하고 필요하다고 보았다. 정신과 의사 안나 렘케 (Anna Lembke)는 소소한 불편도 참지 못하는 현대 인의 고통 기피증이 역설적으로 더 많은 고통을 느끼게 한다고 오늘날 세상을 고통 사회(pain society)로 분

더는 못 참겠다고 이제 더 참고 살지 말자고 하는 순 간, 고통은 사라지기보다 오히려 쑥쑥 배가된다.

자객 열전에서 자객들은 자신을 인정해 주는 주군 을 위해 수많은 시간을 견디고 기다린다. 의로운 복수 이면에는 오랜 견딤이 자리하고 있다. 춘향은 사랑을 위해 고문을 견디고, 충신은 나라를 위해 고통을 견딘 다. 고전의 기본 모티프다. 물론 학생들이 합격까지, 어부들이 만선까지, 산모가 출산까지 그 모든 견딤의 중량을 비교할 수 없지만, 육체적 고통을 통해 정신적 고양을 할 수 있다면, 눈 속의 매화처럼 고고하게, 삼 보 일배의 결연한 자세로 오늘도 나는 견뎌낼 참이

글로컬대학30, 사립대학 연합이 활로다



고

기

위성옥 조선대 관학협력센터장

안전지대는 없다. 오래 전부터 예견되어 있었다. 갖 은 처방전을 내려 봤지만 멈출 수가 없다. 우리 앞에 확 산되고 있는 '소멸시대' 이야기다.

저출생으로 시작된 심각한 위기는 인구소멸, 학교소 멸, 지방소멸의 악순환으로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지 방소멸로 인해 대학 졸업생은 갈 곳이 부족하고 신입생 은 갈수록 부족하다.

대학 입학 자원은 2020년 46만명에서 2040년 28만 명으로 급감한다. 현재 수도권 대학과 지방 국립대학 입학 정원은 대략 26만명이다. 소멸의 절벽에 다가서 고 있는 지방 사립대학의 현주소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대비하여 2000년대 초반부 터 대학 구조개혁 평가와 대학 기본역량 진단을 실시했 다. 대학별로 정원을 감축시켰고, 경영부실 대학은 폐교 로 유도했다. 의도한 대로 재정난에 허덕이다가 문을 닫

는 지방 사립대학이 속출하고 있다. 문제는 폐교된 지방 대학과 그 인근이 볼썽 사나운 '폐허'가 된 것이다. 그 동 안 정부가 대학에 가했던 '혁신 매스'의 역효과다. 안일 한 처방과 국소적 치료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켰다.

우리와 비슷하게 학령인구 감소 위기를 겪고 있는 일 본은 2018년 과감한 대학 구조개혁을 전개했다. '2040년을 향한 고등교육의 그랜드 디자인'을 선언한 것이다. 단일 국립대학 법인의 복수 국립대학 운영과 사립대학간 학부 양도를 허용하고 국립·공립·사립 대 학을 통합하는 법인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이 핵심이다. 복수의 국립대학을 통합한 후 새로운 단일 국립대학이 기존 국립대학을 경영하는 것은 우리도 이미 추진하고 있으니 새로울 것은 없다.

하지만 서로 다른 사립대학 간에 효과적인 대학 경영 을 위하여 학부 단위를 양도할 수 있게 한 것은 파격적 이다. 지역 내 국립·공립·사립 대학간 강화된 연대체계 를 구축하기 위하여 별도 법인을 설립하고 법적 구속력 과 소속감을 높히겠다는 것도 획기적이다.

현 정부도 과거와는 확실히 차별화된 방식으로 지방 소멸의 탈출을 시도하고 있다. 대학 지원의 행·재정 권 한을 지자체로 대폭 이양하고 지역 주도 고등교육 정책 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비수도권 대학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글로컬대학30 사업은 고등교 육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각자도생의 한계에 직면한 지방대학으로서는 글로 컬대학30 사업이 지역과 동반성장할 수 있는 '꿈씨'가 될 수 있다. 기회는 살려야 한다. 확실하고 유일한 해법 은 상생과 협력이다. 지역 내 사립대학들이 연대하여 공동의 거버넌스로 연합대학을 운영한다면 꿈과 현실 이 만날 수 있다. 기존의 대학과 새로운 연합대학간 권 한과 역할을 미래지향적으로 설계한다면 시너지 효과 는 도시재생으로 이어질 것이다. 1+1은 3이 될 수 있 다. 무엇보다 지자체가 밀고, 정부가 견인하고 있다.

대학 간 셈법에 따라 눈앞의 득실이 다르니 자칫 동 상이몽으로 꺼질 수 있다. 각 대학들은 규모와 역량에 따라서 하향평준화 내지는 흡수통합도 우려할 것이다.

하지만 2040 암울한 미래를 직시하자. 이대로 가면 지방 사립대학은 설 수 있는 길이 없다. 반면에 하나의 연합대학이면 살 수 있는 길을 만들 수 있다. 뭉치면 산 다. 세상 이치가 그렇다. 이제라도 '제로섬 게임방'에 서 나와야 한다.

각각의 대학이 갖고 있는 역량을 지역발전의 나침판 에 맞춰 공동으로 키워야 한다. 모든 것을 공유할 때 공 존할 수 있다. 사회적 흐름에 뒤쳐지는 분야는 가차없 다. 매스를 가하자. 그게 살리는 길이다. 글로컬대학 30이 가리키는 방향도 그 곳이다.

社說

한달 앞둔 총선…전략과 리스크 관리가 좌우

오늘로 30일 앞으로 다가왔다. 더불어민 주당과 국민의힘 등 거대 양당 주자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본격적인 본선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제22대 총선은 호남에서도 여러 가지 점에서 의미있는 선거다. 민주당 입 장에선 광주에서 시작된 현역 교체 바람 이 전남에서도 이어질지, 사천 논란 등 공 천 파동이 수도권 등 타 지역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에 따라 제1당을 사수 할지 여부가 관심사다.

국민의힘은 16년만에 취약지인 호남을 비롯해 전국 254개 모든 선거구에 후보를 낸 가운데 자신들의 희망대로 광주와 전 남·북에서 각각 1석씩 '호남 3석' 확보가 가능할지와 3선을 지낸 이정현 후보의 당 선 여부와 득표율이 관전 포인트다. 제3 지대 선전 여부도 관심인데 어제 광주 광 산을에 출마를 선언한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의 득표율이 최대 관심사다. 낮 은 정당 지지율과 민주당 탈당으로 인한

4월 10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총선거가 '배신자 프레임'으로 인해 당선 가능성은 낮다는 지적이 많다. 여기에 두자릿수 비 레대표 정당 지지율로 제3지대 선두를 달 리는 조국혁신당이 "지역구는 민주당, 비 레대표는 조국혁신당"이라는 이른바 '지 민비조' 전략으로 민주당 텃밭에서 교차 투표를 유도하는 것도 호남에서 교두보를 확보하려는 새로운미래 지지율 정체의 원

> 이번 총선은 야당의 '정권 심판론'과 여 당의 '거야(巨野) 심판론'의 대결이다. 비 레대표 투표를 놓고 범진보와 범보수가 연 합 전선을 형성한 터라 어느쪽이 중도 표 심을 얻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린다. 그런 만큼 지금부터가 전략을 재 점검하고 리스 크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할때다. 어느 총 선때보다 호남 유권자들이 마음의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다. 호남은 선거 때마다 '전략적 선택'을 통해 한국 정치의 균형추 역할을 해왔다. 호남정치 복원이라 는 지역민들의 염원을 담아내는 정당이 선 택을 받을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

'빈곤 노인'이 절반…고령화시대 지원책 절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3년 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에 해당하는 고령 인구는 973만명으로 전 체 인구의 19.0%를 차지한다. 전체 인구 대비 고령 인구 비율은 2015년 13.2%, 2020년 16.4%, 2022년 18.0% 등 매년 높아지는 추세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절반 가까이가 '빈곤 노인'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이들은 연금을 합쳐도가처분 소득이 연 804만원에 불과 해 제대로 된 생활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사회보장 행정 데이터로 분석한 한국 빈곤 노인의 특성'에 따르면 빈곤 노인이 전체 노인 인 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5.6% 달했다. 성별로 보면 여성 노인 빈곤율이 49.0% 로 남성 노인 빈곤율인 41.2%보다 8% 포

또 연령이 높아질수록 빈곤율도 상승하 찾아야 할 것이다.

는 경향을 보였는데, 가처분 소득을 기준 으로 초기 노인인 60~69세 빈곤율이 35%로 가장 낮았고 나이 대에 따라 점점 높아져 80세 이상에서는 55.6%가 빈곤 노인이었다.

빈곤 노인의 가처분 소득 수준은 연간 804만원으로, 비(非) 빈곤 노인의 1797 만원에 비해 2배 이상 낮았으며 연금・사 회보장금을 제외한 빈곤 노인의 시장 소 득은 연 평균 135만원에 불과했다.

우리나라는 내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에 도달해 UN이 규정한 초고령사회에 진입 한다. 17개 시도 가운데 절반에 달하는 8 곳이 이미 초고령사회에 들어섰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OECD 최 상위 수준이다. 국회와 정부는 노인 일자 리·소득 지원과 관련한 법안 등 노인 빈곤 관련 법안과 정책을 세세히 검토해 실질 적으로 노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을

無等鼓

광양의 보물

국립광주박물관에 전시되고 있는 광양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雙獅子 石燈·국보 183호)은 조형미가 빼어난 걸작이다. 충 북 보은 법주사, 경남 합천 영암사지 석등 과 함께 통일 신라 후대에 등장한 쌍사자 석등 가운데 하나다. 두 마리의 사자가 가 슴을 맞댄 채 화사석(火舍石, 등불을 밝 히는 공간)을 떠받치고 있어 쌍사자 석등 으로 부른다.

조선총독부 기수 오가와 게이키치(기川 敬吉)는 1931년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을 조사한 후 "석탑은 신라

말기의 걸작이다. 등롱 (燈籠, 석등)은 쌍사자 로 구성된 일품이다. 둘

다 국보로서 가치가 충분하다"는 보고서를 남겼다. 당시 쌍사자 석등은 3층 석탑과 함께 중흥산성 폐사지에 나란히 세워져 있 었다. 조선총독부 고적 조사위원회는 "조 선에서 가장 뛰어난 유물이 내지(일본 본 토), 기타로 유출될 것을 우려해 등록하여 보존하고자 한다"고 보물로 지정 의결했 다. 문화재 반출로 악명 높았던 일제가 아 이러니 하게도 보호에 나선 사례다.

진정환 국립익산박물관 학예연구실장 은 최근 광주박물관이 발간한 '광양 중흥

사 회 부 220-0664

전 남 본 부 220-0680

산성 쌍사자 석등'에 기고한 논문에서 이 석등을 860~870년대에 도선국사가 조 성했다는 새로운 견해를 제시했다. 도선 국사가 출가한 도량이 사사자(四師子) 삼층 석탑이 있는 구례 화엄사인데다 그 가 불교 미술을 섭렵한 덕분에 석탑과 석 등을 충분히 만들 수 있었다는 추정이다. 도선이 입적하기까지 35년 동안 머물렀 던 광양 옥룡사와 직선 거리로 2.5km 떨어 진 중흥산성 절터에 석등이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이는 전북 남원 실상사와 3.19

> km 떨어진 백장암에 수 철 화상이 조성한 통일 신라 석탑과 석등이 있 는 것과 맥락이 같다.

진 연구실장의 설명에 따르면 도선과 수 철은 스승의 선맥(禪脈)을 잇지 못해 각각 옥룡산문(玉龍山門)과 실상산문(實相山 FT)을 열었다. 이들이 각자 산문을 대표하 는 상징물로 조성한 게 쌍사자 석등과 고 복형(鼓腹形, 북을 옆으로 엎어 놓은 모 양) 석등이라는 것이다. 이번에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에 대한 새로운 견해가 발표된 것을 계기로 후속 연구가 활발히 진행돼 광양의 유일한 국보가 재조명됐으면 한다.

/윤영기 사회·체육담당 부국장 penfoot@

(FA X 222-0195)

⟨FAX 222-0195⟩

⟨FAX 02-773-9335⟩

서 울 지 사 02-773-9331

光则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 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대표 FAX 222-4918) 경 영 지 원 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국안내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2-8005⟩ 부 220-0652 기 획 관 리 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부 220-0692 제 부 220-0663 부 220-0693 ⟨FAX 222-0195⟩

부 220-0697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디 자 인 실 220-0536